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흥관



우리나라는 해마다 1만5000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일 42.2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계산하면 34분 당 한 명이 자살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다. 그것도 10만 명당 109.6명으로 60.4명으로 2위인 헝가리와 47.8로 3위인 스위스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다.

가મે 시달려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호적상으로는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종의 고통까지 겪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더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젊은이들의 자살에 비해 사망률이 3~5배 높다. 흔히들 목을 매거나 시골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마시는데 제초제는 치명률이 높다. 남자 노인들은 여자에 비해 더 무능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경우 더 고달픈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 노인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높다. 음독 자살을 하는 경우 독거노인들은 발견이 늦어져서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60대는 54.6명인데, 70대는 80.2명, 80세 이상은 127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률은 더 높아진다. 그럼 왜 이렇게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와 60년대의 가난 속에서 자녀교육에 매진하여 70년대와 8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을 이루는데 땀 흘렸던 경제성공을 이룬 지금 돌아오는 것은 빈대와 무관심이다.

노인들은 배우자의 죽음,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상실,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정신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치가 주는 복지혜택은 미미하다. 소외된 도시 빈민과 농촌 노인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무의탁 노인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고독감과 상실

복지국가 지향하는가 정반대인가

해 사망할 확률이 3~5배 높다. 흔히들 목을 매거나 시골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마시는데 제초제는 치명률이 높다. 남자 노인들은 여자에 비해 더 무능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경우 더 고달픈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 노인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높다. 음독 자살을 하는 경우 독거노인들은 발견이 늦어져서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그나마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달래는 경로당 겨울 난방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듣기만

해도 추운 소식이 들린다. 이 난방비는 5만6480개 경로당에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90만 원 난방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천금같이 귀한 411억 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친서민정책을 편다고 표방하는 현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내년도 국가 총예산 규모는 약 309조6000억 원이다. 그런데 내년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3조3000억 원,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3조8000억 원으로 총 7조1000억 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 7조 원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액수인 것

같지만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줄이고 말 것이 없는 비용들이다. 따라서 한해 7조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허필 복지예산이었고, 그것도 험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었다.

복지가 위협받는 계층은 노인들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2000명으로 동결하여 편성할 전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아예 수급대상자 2만7000명을 대폭 축소하여 160만5000명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가 빈곤층의 삶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도 올해 1108억 원에서 111억 원을 삭감한 997억 원을 편성하여

25만 포의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 수급자 29만 가구와 차상위 6만1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장애인들도 지원 축소의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이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았으나 이 예산을 14.6% 축소하여 196억 원을 삭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을 끊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차 적어진다며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3~14위라는 것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었다는 것이 저물들의 잔치로 느껴질 때 자신에게 무슨 혜택으로 느껴지겠는가.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떠난 서울에서 경복궁이 불타고 서울이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나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일반군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나라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금융연동협의회의 회장·국립암센터 의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박광성



불과 몇 주 사이에 짧은 가을이 지나고 싸늘한 초겨울 한파가 찾아왔다. 매년 찾아오는 추위지만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 때문인지 중년 남성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요즘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짧게 사는 삶, 즉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짧게 살고자 노력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인간은 노화라는 야속한 신체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자신감을 잃게 하며 이로부터 오는 불안과 우울은 성생활에 임하는 것을 더욱 방해해 발기부전으로 접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남성에게 발기부전이란 커다란 벽과도 같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뼘쯤 마주치게 되지만, 결코 반가울 수 없다. 또한 중년 남성들의 경우 본인이 발기부전을 인정하기 쉽지 않고,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 더욱이 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하며 발기부전은 심혈관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바로미터 역할

'남성 갱년기'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라

변화 중 하나는 남성호르몬의 감소이다. 그리고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갑작스런 변화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나 시기를 '갱년기'라 부른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라는 신체적 징후로 갱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뚜렷한 징후가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주사 및 수술요법 등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했지만, 2000년 들어 경우를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등장 이후 보다 쉽게 발기부전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편리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만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 및 개인에 맞는 적당한 치료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기적인 부부관계와 대화를 통해 성호르몬의 대사가 감소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와 흡연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해서 줄이거나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가는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노화와 갱년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을 통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기고

신승호



지리산을 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출발점으로 삼는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은 해발 1507m로 바람과 자외선이 강하며, 기압이 낮고, 밤낮의 일교차가 심해 식물 생장에 매우 열악한 아고산지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거기가 1920년대 외국인 선교사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기 위해 52동의 건물이 지어지면서 인간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다시 7·80년대 이곳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이 들어오면서 노고단의 식생은 격변의 과정을 맞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고단의 토양 침식 현상이 사라지고 녹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기존 116종에서 148종으로 식물의 종류가 늘면서 대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됐고 학계에 성공사례로 보고됐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력에 자연이 원래의 옛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지리산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공단이 자연을 훼손했지만, 2년 후 철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텃밭달래, 산철쭉, 원주리,

노고단이 살아나고 있다

확장 포장되면서 탐방객 수가 기존의 약 40배 정도 늘어나면서 노고단은 수용능력이상의 탐방객으로 인한 식생훼손, 표면침식, 무단 식물채취로 손상을 입게 됐다. 이런 상태에 이른 노고단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1991년부터 93년까지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해 자연 스스로 복원되기를 바랐지만 원천적 출입 차단이 되지 않아 식생 복원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우려하는 토양침식 현상이 계속 진행됐다.

따라서 공단은 다시 1994년 훼손이 심한 노고단 지역 생태계복원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와 복원 설계를 마치고,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예산을 투입해 노고단식생 복원공사를 실시했다. 침식된 초지사면의 배수로를 정밀해 빗물에 의한 자연 침식을 최소화시키고, 지반안정을 위한 표토보충 및 흙 자루와 빗 집, 황마식생매트 시공 등을 통해 식물의 활착을 돕고 훼손을 막기 위해 경계 목적을 시공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고단의 토양 침식 현상이 사라지고 녹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기존 116종에서 148종으로 식물의 종류가 늘면서 대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됐고 학계에 성공사례로 보고됐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력에 자연이 원래의 옛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지리산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노고단 아고산대 초본류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완전복원에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무소에서는 노고단에 다양한 식물종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연 스스로 훼손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보존 중심의 국립공원으로서 학술적, 생물자원이 높은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미래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자연이 없이 건강한 인류가 있을 수 없으며, 온전한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노고단을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참여와 활착을 돕고 훼손을 막기 위해 경계 목적을 시공했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장)

대학은 학문 연마하는 곳·신입사원 직무교육은 기업 몫

최근 언론이나 기업에서 대졸자들이 직무교육이 되지 않아 직원 채용 후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이야기 한다. 대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 사원 재교육에 드는 비용이 1인당 1억 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은 본연의 응용·기초학문 연구, 연구의 기능을 하는 곳이지 취업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학문적 토대를 통해 사교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각의 깊이를 두텁게 하는 것은 대학

시절의 필수과정이다. 대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잠재적 가능성을 키우고 그 가능성은 연구를 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핵심으로 작용한다.

대학생은 그릇을 키우는 단계이다. 큰 그릇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무엇이든 집어넣을 수 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릇에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면 이미 효용가치는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업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시설

국회의원 잇단 악재 지역 정치 위축 없어야

광주·전남지역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로비 연투 및 뇌물 수수 의혹에서 정치적 좌절에 이르기까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정국의 '태풍의 눈'인 청목회 입법로비에 3~4명의 지역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강기정 의원의 경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대통령 부인이 '뭉툭'이라고 주장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은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음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 심지어 검찰의 C&T 및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중진의원들은 당내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는 등 정치적 좌절을 겪었다가 하면 지역구 구청장 공천 책임론에 내몰려 곤욕을 치른 의원들도 있다. 한마디로 지역 정치권이

가센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 같은 지역의원들의 시련은 자칫 지역정치의 위축, 나아가 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예산국회에서 지역현안 사업 행거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원들이 이리저리 구설수에 휘말릴 경우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은 정정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음해 관련 구제적인 증거를 갖고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그렇듯 양을 경우 신속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자신을 뺏아준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지역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정치적 역량과 도덕적 자질을 겸비한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이는 온전한 지역민의 몫이다.

시민 혈세 받고도 불친절·난폭운전이라니

최근 일부 광주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의 난폭운전과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가 각 버스업체에 통보한 뒤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접수된 시내버스 이용 불편신고는 ▲불친절 111건 ▲승하차 거부 90건 ▲승강장 미정차 66건 등 총 304건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97건을 시정경고하고, 40건을 교육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기각 및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불편신고가 많은 '불친절'의 경우 제재 수단이라는 게 버스업체 자체교육에 불과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재 조치가 이처럼 '술 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행위는 열악한 도로 구조와 무질서한 주차장, 마구잡이식 운행 등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가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 버스업체의 만성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무려 1133억 원을 쏟아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시내버스 기사들의 변화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정화'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에 불과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재 조치가 이처럼 '술 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無等鼓

특정 날짜를 특정 음식이나 상품의 기념일로 설정해 소비를 유도하는 '데이 마케팅(Day marketing)'이 유행이다. 데이 마케팅의 원조인 밸런타인데이(St. Valentine's Day)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도왔던 발렌티노 성인의 정신을 기려 매년 2월 14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교환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14일은 기념일로 모두 정착했다. 매출 효과가 크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마케팅은 뚜렷한 유래 없이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변질된 것은 일본 식품업체의 철저한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1960년대에 일본 식품업체는 밸런타인데이를 소개하면서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라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제는 국내로 들어와 각종 '데이'로 진화했다. 국내 업체들은 2월 14일인 밸런타인데이를 기초로 해 매달 14일을 특정 기념일로 정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월 14일은 다이어터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등으로 어느샌가

정부가 각종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기념일을 정하는 것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삼기로 했다가, 최근 철회했다고 한다. 한 해 가운데 '1'이 가장 많은 날을 잡아 '1'이 많으니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농업인의 날'이나, 국토해양부의 최근 지정된 '보행자의 날', '베베로 데이', '가래떡 데이' 등과 겹쳐서 기념일 지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런 말 장난으로 일자리가 진짜 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news@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